

##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하정혜\*\*· 김지현\*\*\*

### 초 록

이 연구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적응과 관련하여 그들의 잠재력과 긍정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내면화된 성역할이 자신 혹은 자신을 둘러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인 성역할갈등 이론을 토대로,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을 중년여성 한부모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40세 이후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뒤 2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재혼하지 않은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 8명이었다. 이들의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의 내러티브는 '견뎌내기-장벽을 넘어서-삶의 주체가 되기'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소외의 시간을 지나서 삶의 의미 찾아가기'의 경험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 타인을 우선 돌보는 책임을 여성의 성역할로 내면화한 채 수동적으로 견뎌내지만 점차 성역할 기대에 대한 불편함을 깨닫는 시간을 지나서 지금-여기에서 참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의 경험에서 나타난 의미 찾아가기의 공통점을 통합하여 '주체 안에서 타자로 살아옴', '돌봄의 버거움을 인식함', '문제는 모두 내 잘못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기', '관계를 방해하는 힘과 마주침', '삶에 대한 책임감', '관계 돌봄을 재정의함', '내가 있는 내 삶과 만남'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의 의미, 관계의 의미, 자기(self)의 의미의 측면에서 상담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성역할갈등, 중년여성 한부모, 외상 후 성장, 내러티브 탐구

\* 본 연구는 하정혜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년 2월)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의 일부를 수정, 요약한 것입니다.

\*\* 제1저자 : 홍익대학교 강사(herstory25@hanmail.net)

\*\*\* 교신저자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mongsanga@hanmail.net)

## I. 서론

외상(trauma) 경험은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사건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전통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긍정심리학의 등장으로 연구자들은 외상 사건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강점 측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살면서 만나는 위기 상황에서 외상 경험 이전의 적응 수준과 심리적 기능 수준 혹은 인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삶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Tedeschi와 Calhoun(1996)에 따르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은 외상 사건을 겪은 후에 자기지각, 대인관계, 새로운 가능성, 종교적 영역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뜻하며, 이 때의 외상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간주된다. 연구자들은 외상 후 성장을 이해하려면 외상 사건의 객관적인 특성과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그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이해함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McAdams, 1995 ; Yalom & Liebman, 1991). 외상 경험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이상의 외상 사건을 겪고, 전쟁이나 테러, 성적 피해, 학대, 교통사고, 질병, 자연재해, 사별, 이혼, 도래 갈등, 이별 등 외상 사건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양자·정남운, 2008).

개인에게 이혼과 사별은 중요한 관계의 상실을 뜻하며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한부모는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전에는 결손의 뜻을 가진 편부모가 사용되었으나, 1997년 한국 여성민우회에서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1년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모 중 한쪽만 있지만 ‘하나로도 충분하고 가득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한국여성민우회, 1999).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7.9%(2000년), 8.6%(2005년), 9.2%(2010년)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0년 이후 40대와 5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와

50대의 이혼율 급증으로 40세 이상의 남녀 한부모의 비율이 높는데, 이 가운데 여성 한부모 가족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 한부모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초점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결혼관계의 해소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되어 2-3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의 적응 수준이나 심리적 기능 수준을 회복하기도 하므로, 한부모의 긍정성을 발견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들(Guttman, 1991 ; Wang & Amato, 2000)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의 한부모 관련 연구들은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는 병리적 관점에서 여성 한부모가 성역할 변화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사회적 편견에 따른 부정적인 후유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사별한 여성의 위기 사건에 대한 심리적 외상을 다루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함(곽배희, 2001 ; 최은화·이윤희, 2010)을 지적하는 등 한부모의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김혜선·김은하, 2010).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이혼을 하나의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규정한 위기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이혼은 고통스러운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하나의 길일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되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밝히고 있다(공선영, 2000 ; 김경순, 2010). 또한, 사별이나 이혼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영향이 포함된 복합적인 과정이므로 상실과 적응 과정을 연속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하며(이경희, 2006), 한부모의 적응 과정을 탐색한 질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노영주, 2001 ; 송옥, 2013). 그러나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의 적응과 성장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같은 경험이라도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과 내용은 발달시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중년여성 한부모가 중년기와 한부모라는 전환적인 사건을 함께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독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중년여성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의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의 독립시기를 맞게끔 되므로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자녀 관계 또한 복합적 양상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 한부모들은 대체로 자녀를 삶의 원동력으로 지각한

다(현은민, 2008)는 점에 주목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하였다.

Jung(1954)에 따르면 중년기는 삶의 경험이 의미 있게 통합되는 전인적 발달 특성을 갖고, 지적인 인식과 감정적인 통찰을 포함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자기인식을 촉진하여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individuation)가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이다(이부영, 2002). Jung은 40세를 전후한 이 시기에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삶의 목표에 대한 의문으로 중년기의 위기가 시작되며 신체와 심리적 변화,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따른 실존적 공허를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중년기의 위기도 도전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Jung은 내적 성찰을 통해 자기실현을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내면화된 특성을 관계 속의 자기(self-in-relation)로 이해한 Gilligan(1982)은 여성은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자기를 돌보는 내적 시간을 가짐으로써 중년기에 겪게 되는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인관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여성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중년여성은 타인을 우선 돌보는 역할보다 자신을 돌보고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Helson, Stewart, & Ostrove, 1995). 이것은 중년여성 한부모라는 전환적 경험들이 긍정적 맥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위기 사건은 삶의 방해물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김지혜, 2008).

성역할(gender role)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성에 적합하다고 기대되는 특성으로, 개인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 성역할 또는 여성 성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 기대, 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Pleck, 1981).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해 연구자들은 성역할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성역할 차이에 따라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지현, 2008 ; Bem, 1974 ; Gillespie & Eisler, 1992 ; Helgeson, 2002). 연구자들은 내면화된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이 개인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심리적으로 역기능적일 수 있으므로 성역할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고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별하여, 내면

화된 성역할이 자신 혹은 자신을 둘러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이라고 개념화하였다(O'Neil, 1981 ;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 Pleck, 1995). O'Neil(2008)은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을 생애주기에서 발달 과업의 갈등에 직면하거나 성역할 변화를 경험할 때, 성역할 규준에 위배되고 이탈하여 이러한 규준 만족에 실패하거나 실패한 것에 대한 자기평가 절하와 경직, 모욕감을 느낄 때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따뜻함 그리고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성성의 측면이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고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삶의 다양한 장면에 걸쳐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내면화가 여성의 삶에서 자기를 잃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 역할 부담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한인영·홍선희, 2011), 여성의 나이 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믿음을 내면화한 결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며(김지혜, 2008), 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느끼면 관계 갈등과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김혜선·김은하, 2010)고 지적한다.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해 한국의 중년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은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주장 억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정혜·김지현, 2012). 이는 여성이 사회적 평가에 의해 자신을 가치 판단하고 자신의 욕구가 억압된 채 타인을 우선 돌보는 관계지향성을 내면화한 결과(Helgeson, 2002), 중년여성이 겪게 되는 심리적 불편함이 반영된 내용들이었다. 성역할 내면화의 맥락에 따르면, 아내로 어머니로 이타적 삶에 헌신한 여성의 정체성은 결혼관계를 돌보면서 더욱 구조화돼 위기 상황에서 적응을 어렵게 하여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Efthim, Kenny, & Mahalik, 2001).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의 화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타인을 우선 돌보며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한부모는 이혼 또는 사별에 따라 가정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거나 배우자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자기비하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자녀가 경험하는 아버지의 부재 등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여성 한부모됨의 삶의 조건은 여성 정체성의 사회적 기대에 대한 도전이 되고, 한부모가 된 상황을 실패 경험으로 여기게 되므로 외상 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에서 보면 중년기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로서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삶의 조건이 전환된 경험은 중년기 정체성의 재정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부모가 경험하는 성역할 내면화 과정과 외상 후 성장의 탐색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외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왔고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외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는 극복하게 도와 줄 것이냐의 논의를 해왔지만, 극복이라는 것은 문제중심의 시각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긍정심리학의 측면에서 한부모의 긍정성과 강점을 발견하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별 또는 이혼의 외상 사건을 넘어서는 적응 과정이 어떠한가는 중년여성 한부모 자신의 삶, 한부모의 가족관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외상 후 성장의 내용을 보면 경험의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과 세상,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 틀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내적인 성장을 찾아내는 과정이 포함된다. 성역할 내면화 과정과 외상 후 성장의 내적 경험은 수량의 특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심층적인 경험이고, 따라서 경험의 계속성과 총체성을 고려하는 과정적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재구성되는 경험의 실재에 대해 개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기술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그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적인 접근 방법이다(김영천, 2006).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가운데 내러티브 탐구는 정체성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타자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삶의 이야기와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삶에 주목한다. Clandinin과 Connelly(2000)에 따르면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밀접한 관계 맺기가 요구되는 관계적 특성이 있는데,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내러티브를 통해 참여자가 경험한 살아낸 이야기(living)를 말하고(telling), 이것은 연구자를 통해 다시 이야기(re-telling)되면서, 이야기는 참여자와 연구자 그리고 독자가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re-living) 하는 성찰적인 순환관계가 있다. 내러티브의 이러한 구성과정은 존재(being)에 대한 기술만이 아니라 존재의 가능성(becoming)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박민정, 2006).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다루지는 주제들이 상담영역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박승민, 2012), 중년여성 한부모가 정체성 재정립에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은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 내면화 과정과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내러티브 탐구

Clandinin과 Connelly(2000)에 따르면, 경험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다른 경험에서 생겨나서 또 다른 경험을 이끌어 내는 계속성을 가진다. 이들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기본 틀로 상황, 시간성, 상호작용의 삼차원의 탐구 공간과 이 탐구공간 안에서 내적, 외적, 과거, 미래의 네 가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내적 방향은 느낌, 희망, 도덕성, 심미적 반응과 같은 내적 조건을, 외적 방향은 환경과 같은 조건을 말하며, 과거와 미래 방향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험을 경험한다는 것은 네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내러티브 탐구 단계를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 제시하였다. 실제 과정에서는 단계가 중복되거나 역순으로 수행되기도 하므로(김영천, 2006), 이 연구는 결과 제시의 명료화를 위해 유사한 과정을 통합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의 단계를 따랐다.

##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는데, 연구 목적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성과 연구 현상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가 되도록 수집하는 충분함에 근거하였다(Maxwell, 2009). 자료 수집은 현장 접근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단체의 한부모 담당자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그들의 소개를 받은 사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는 40세 이후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뒤 2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재혼하지 않은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를 기준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한부모가 된 원인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이혼한 경우 4명(40대 1명, 50대 3명)과 사별한 경우 4명(40대 2명, 50대 2명), 모두 8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한부모 기간의 평균은 약 8년이었으며,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한부모 기간	한부모가 된 원인 (결혼기간)	자녀 수	학력	현재 하는 일	기타 사항
참여자 1	51세	6년	이혼(24년)	3명	고졸	금융 서비스직	이혼 후 대학 진학 재학 중
참여자 2	55세	3년	이혼(12-14년)	1명	고졸	사무직	
참여자 3	53세	13년	이혼(14년)	2명	대졸	여성단체활동가	
참여자 4	48세	8년	이혼(8년)	2명	대졸	여성단체활동가	
참여자 5	51세	10년	사별(17년)	3명	대학원졸	계약직공무원	사별 후 대학 진학 졸업
참여자 6	47세	5년	사별(13년)	2명	고졸	계약직공무원	
참여자 7	52세	8년	사별(14년)	3명	고졸	병원사무직	
참여자 8	48세	7년	사별(14년)	2명	고졸	계약직공무원	사별 후 대학 진학재학 중

## 3.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질문인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 내면화 과정과 외상 후 성장의 경험은 어떠한가?’를 탐색하기 위해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고 <표 2>와 같이 면담질문을 작성하였다.



면담은 비형식적 대화와 반 구조화 형식으로, 참여자가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연구자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였다. 자료 수집은 예비연구를 위한 두 명의 면담이 포함된 2013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첫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참여자와 연구자가 동의하고 공식화하였다. 면담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면담 내용의 일부분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며 비밀 유지와 익명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설명하였다. 면담을 마칠 때마다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에서 연구에 인용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참여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1회 내지 2회의 면담이 한번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 또는 참여자를 소개해준 개인이나 단체의 도움으로 참여자와 연구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질적 자료의 분석 과정은 김영천(2006)의 제안에 따라 전사 작업, 메모 작업, 개방코딩, 심층코딩, 주제생성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

먼저, 전사 작업과 메모 작업을 하였다. 면담자료의 축어록은 A4 종이 287페이지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현장노트에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모습, 분위기, 강조점 등을 기록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함께 느끼려고 하였다. 현장노트의 기록은 수집한 자료에서 발견한 주제나 떠오르는 생각 등의 반성적 노트로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경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창조한 것이므로 현장 텍스트라고 한다. 둘째, 개방코딩은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드러내는 주제화 작업이다. 자료의 의미를 드러내는 주제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단계여서 산만하고 혼란스러운데 연구자가 혼란을 줄여가고 참여자의 생각이나 생활세계를 잘 드러내야 하므로, 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부적 용어(emic term)를 선택하였다. 셋째, 심층코딩 작업은 개방코딩에서 발견한 핵심 주제를 응집된 범주로 묶음으로써 주제를 재조직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의 내부적 용어에서 드러나는 내러티브와 관련된 사회구성적인 요소를 탐색하여 명칭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주제를 개념화하였다. 면담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며 재구성하는 작업이고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참여자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삶이므로(Bruner & Gorfain, 1984), 참여자의 실제 삶과 경험한 삶, 이야기된 삶 사이의 거리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넷째, 범주 또는 개념인 주제의 생성으로, 주제는 수집된 자료 중에서 그 자료들이 나타내려는 주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결되거나 응축되는 유사한 주제의 묶음 덩어리이다(Creswell, 2005). 이는 경험된 텍스트가 이야기된 텍스트와 함께 재구성되어 의미 있는 주제로 묶여 주제별 텍스트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주제의 생성은 경험의 의미를 ‘보는’ 자유로운 행위이고, 발견된 주제는 타자의 삶과 비교하여 참여자가 경험한 특정한 의미의 구조가 되며,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수정되는 이 과정은 순환적이다(김영찬·허창수, 2004). 주제 생성 과정에서 연구자는 심층코딩에서 만들어진 핵심 내용을 내러티브의 순환관계와 이야기의 삼차원 공간과 네 가지 방향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한 차원 높은 은유적 표현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였다.

####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 작업은 연구 작업과 결론이 연구 주제를 잘 드러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연구방법, 연구자, 이론, 자료 등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하는데, 타당성 준거로 일반적으로 다원화(triangulation)를 사용한다(Denzin, 1982; Guba & Lincoln, 2005). 본 연구는 다음의 다원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동료 지지 집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았다. 연구방향 설정과 감독관의 역할을 한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과 여성사 연구를 수행한 교육사철학 전공 교수 1명에게 질문지 작성과 주제 도출 과정,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받았다. 현재 상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전공자 3명에게 도출한 주제의 명명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2명에게 연구 결과에 대해 동료 검증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 참여자 중 평가 작업 참여에 동의한 3명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읽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었고, 도출한 구성 요소의 명칭에 대해 적절한 수정을 제안하는 등 연구자에게 의견을 보내주었다. 이 작업은 연구

자와 참여자의 균등한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참여적 성격을 반영하는 참여적 타당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영천·허창수, 2004). 셋째,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교육인류학회’의 월례회 참가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아동상담 및 아동심리치료 연구회의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표 2〉 심층 면담을 위한 면담 질문

주요 질문	하위 질문
한부모가 된 외상(trauma) 사건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생활의 삶과 한부모가 된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li> <li>· 사별의 의미 또는 이혼 선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li> <li>·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은 무엇입니까?</li> </ul>
삶으로서의 성,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 된 이후 변화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합니까?</li> <li>· 여성 한부모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 통념은 어떠합니까?</li> <li>· 여성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li> <li>· 남성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li> <li>· 중년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li> </ul>
외상 후 성장과 경험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 된 후 더 중요해진 것과 덜 중요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한부모가 된 후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한 내용은 무엇이고 의미는 어떠합니까?</li> <li>· 중년여성 한부모로서 긍정적인 변화에 힘이 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li> <li>·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여성 한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합니까?</li> </ul>

### III. 연구 결과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분석 절차대로 연구 텍스트를 구성한 결과,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의 내러티브가 각각 재구성되었다. 중년여성 한부모들의 경험은 ‘견뎌내기’의 시간을 지나 자기와 세상의 ‘장벽을 넘어서’, ‘삶의 주체가 되기’로 구성되었고, 이 이야기들을 통합하는 주제는 ‘소외의 시간을 지나서 삶의 의미 찾아가기’로 명명하였다. 이어서 참여자들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미를 찾아 ‘주체 안에서 타자로 살아옴’, ‘돌봄의 버거움을 인식함’, ‘문제는 모두 내 잘못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기’, ‘관계를 방해

하는 힘과 마주침’, ‘삶에 대한 책임감’, ‘관계 돌봄을 재정의함’, ‘내가 있는 내 삶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재범주화하였다.

## 1.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경험

### [참여자 1의 이야기]

견뎌내기: 삶의 무게들

참여자 1은 현재 51세로 한부모가 된 지 6년 되었다. 1남 5녀 중 맏딸로 고향은 남쪽의 섬 지방이다. 부모님의 사이는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아버지가 생활고에 대한 괴로움을 내색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면 화를 내곤 했다.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헌신하며 일에 피를 부린 적이 없었다. 중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 공장에 취직하여 동생들 학비를 댔다. 야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2살에 이모가 있는 서울로 갔는데 다방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살 위의 남편과 한 달 만에 결혼하였다. 석 달이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도박, 여자문제, 폭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큰 아이 임신에 대해 시가에서 시숙 등을 동원해 유산을 종용했고 그 다음엔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는데 둘째와 셋째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다. 하지만 이혼만은 피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키울 자신이 있었지만 고향의 부모님과 아직 결혼 안한 동생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내가 결혼하면, 열심히 살면 지금 같은 안 살겠단 기준치가 있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다르게 가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얹어요. 항상 나 때문이라 탓해요. 그런데 난 살아야 되니 제가 결심한 게, 절대 이혼은 안할 거다. 그래, 맞고 나면 차라리 낫죠. 맞기 전에 무섭고 불안하지 차라리 때려버리면 끝나… 폭력이라는 게 한번 하면 점점… 더 심한 건 큰딸 중2때 오 분만 늦어도 니가 교육 잘못시켰다면, 아이도 같이 맞았죠. 각목 같은 거나 골프채로…병원도 쉬쉬 하느라 못 갔죠. 날마다 술 여자 도박에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언젠간 돌아올 거라 생각했고… 이혼 망설인 건 시골에 그 소문나는 거, 제가 말이라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 결혼 안한 애도 있는데 그 생각에” .

### 장벽을 너머서: 머뭇거리다가 일어서기

하지만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는 남편의 행동과 둘만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점차 폭력이 심해져서 헤어질 결심을 하였다. 문을 잠그고 때려서 도망갈 수도 없던 날, 귀가하던 둘째 딸이 문을 열어주어 아파트 계단으로 도망쳐 이웃집으로 피신하였다. 그 일을 계기로 당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이던 남편의 폭력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받고 쉼터생활과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 결혼생활 24년만인 45세에 이혼하였다. 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전 배우자를 지켜보고 재결합할 의사도 있었으나, 이혼 2년 시점에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결합할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도구를 이용해서 닥치는 대로, 칼도 갖고 오고 물건도 던지고 생명의 위협을 엄청 느꼈어요. 언제냐면, 애들이 세 명 다 있는데 나가면서 한마디 딱 해요. 욕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쌍욕을 하면서, 조카들 이름을 대면서 너거들은 그 애들이 똥을 싸면 그 애 똥을 빨아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그때 이혼 결심했어요. 그 말, 그 한마디가 저를 결심하게 만들었거든요”.

### 삶의 주체가 되기: 내가 살아 있는 세상으로

이혼 진행과정에서 막내가 4살 때 1년 간 일한 경험이 있는 보험사에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녀는 1남 2녀로 서른살인 큰 딸은 결혼했고 26살 둘째 딸과 22살 막내아들과 살고 있다. 이혼 후, 아들과 같은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야간대학에 진학하여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직장생활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자립의 뿌듯함을 주고 자신감이라는 싹도 틔워 주었다. 한부모가 되고 나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기란 존재가 없었던 세상을 지나 중년인 지금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칭찬해줄 수 있는 여유, 손녀가 태어나 가족이 한사람 늘어났고 비로소 가족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된 점이다.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을 해치는 말은 삼가해야 하지만, 힘들거나 가슴이 벅차면 이야기하고 의논하면서 살라고 조언한다.

“그 전에는 생을 다 포기해 버렸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살아보자 하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컴퓨터에 왔다갔다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사람인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이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더 일찍, 일찍 결심했더라면… 나는 이 애들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었구나. 그 전에 내가 혼자 키워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결심 안 한다면 내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살면서 가정이 원만할까, 내 대에서 여기서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끊자. 끊고 새로운 삶을 나도 만들고 애들도 앞길을 만들어 주자. 이 아이들도 상처가 남아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죠. 그렇게 버틴 거나 이런 결정한 것도 제 자원이란 걸 알았죠”.

### [ 참여자 2의 이야기 ]

#### 견뎌내기: 조금씩 어긋나면서

참여자 2는 3남 2녀 중 셋째로 남동생이 둘인데,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는 화목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스무 살에 한국에 온 어머니는 늘 웃었고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줬던 일, 자신이 초등학교 때 높은 데서 두 번이나 떨어져 허리디스크가 심했는데 공부를 잘해 칭찬받았던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자는 힘든 일도 하지 말고 공부 많이 한 것보다 시집 잘 가서 가장이 벌어오는 것으로 집안 살림 잘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꽃처럼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고 자주 말했다. 그 당시 오빠가 서울에서 재수 중이었는데 자신이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만 가면 좋겠다고 해,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스스로 벌어 대학가겠다고 결심하고 3년 직장생활의 월급을 어머니한테 맡겼으나 결혼한 언니의 생활비로 다 쓰였음을 알게 됐고, 또다시 사촌오빠 집에서 학원을 다니며 초등학교교사 시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25살에 아버지가 결혼을 권유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생활이 여의치 않아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의 활달한 성격이 좋아 결혼하였다. 1년 남짓 만나는 동안 가끔 친구들과 재미삼아 화투를 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서야 상습적인 도박임을 알았다. 게다가 바로 다음 해에 낳은 딸이 7개월 정도 지나면

서 남편은 술주정과 함께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술을 안 먹으면 잘못했다고 벌고 며칠 지나면 또 때리기 시작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새벽 1시에 남편이 왔는데 아는 척도 않고 애기랑 누워있나, 술이 취해서 한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나도 처음엔 좋게 표현했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지금 애기 앞에서 할 소리냐 나이가 뭐 몇 살인데 왜 그러냐면서… 대화가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리고 나면 화를 냈어야 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애기 키우기도 힘든데 애를 낳으니까 탄사람이 돼서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남편한테 실망이 와요, 우리 애가 3살 때부터 너무 맞은 날은 내가 애 데리고 나왔어요. 한 가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데 이들 동안에 사람 괴롭히고 5일 동안은 탄 사람. 너무너무 잘못했다, 다시는 안할 것처럼. 근데 다시 또 닳새 지나면 또… 한번 맞으면 그 맞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도 안 맞을려고 어떻게든지 원하는 대로 했죠… 그 때부터,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남편 바라보고 살다가는 평생 맞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이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없겠구나”.

### 장벽을 너머서: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시간들

이혼은 남이 어떻게 볼까 의식하게 되어 안하고 싶었으며 남편이 아이한테 잘해주며 딸도 아빠를 많이 따르니까 망설였다. 그러나 문을 잠그고 갑자기 목을 조르며 구타하는 폭력을 당했을 때, 남 의식하지 말고 딸하고 살자고 결심하고 딸이 다섯 살 때 이혼했다. 이후에, 남편이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여자는 가정을 무조건 지켜내야 하는데 자신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헤어진 것 같았고 아이에게 아빠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다시 2년을 함께 살았다. 그러나 또다시 남편의 폭력과 의치증으로 시달렸으며 쉼터를 오가는 동안 이혼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형제의 부정적인 시선과 친구들의 외면이 가장 서운하였다. 이런 고립감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를 되돌아봤고, 이들 관계가 이해와 지지의 관계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집에서 공공 앓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전부 안 만나고 친구들한테도 창피하니까 나에 대해서 말 안하죠, 아예. 몸살 나고 너무 아프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나는 어떻게든지 체면이라는 게 좀 있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 거죠. 이혼녀라고 보는 것이

싫었어요. 부모형제들은 처음에 내가 너무너무 심하게 맞는 거 아니까 이혼하니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2년 다시 살아버리니까 부모형제들이 나를 멀리했지, 어리석다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또 가서 살 거지, 또 맞겠지 놀려 먹고 무시. 왜 맞고 왜 의지 하나. 창피하고, 내가 멀리 해 버렸죠. 의논할 상대도 없고… 막상 또 친구 남편들이 싫어해. 이혼은 참을 만큼 참다 온 거다는 인정해요. 그런데 친구 애네가 조금만 대들면 니 친구 이혼해서 너도 그럴려고 그러냐, 그렇게 부부싸움 한다고 그 말을 대놓고 해요, 나한테. 배신감도 들고 친구가 아녜어”.

### 삶의 주체가 되기: 좌절을 딛고 씩씩하게

한부모가 된 후 지금은 사무직 일을 하며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도움을 받은 심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자신의 이혼과 재이혼 경험에서 깨달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의지 또한 다지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이혼한 뒤로 부터 직장생활 착실히 하고 돈도 모으면서 우리 얘기하고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목졸라가지고 살인까지 당할 정도로 고통 받으면서까지 내가 참았는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폭력이라는 거는 참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를 알았죠. 이혼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대인관계도 좋아졌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라다 살 아나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다, 바뀌야 되겠다, 독립적으로 살려면 내가 해야겠다 해갖고 여성의 전화를 안 빠지고 계속 나갔죠. 가서 교육 받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나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내 인생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 하다 보니까 말이 트이는 거예요. 아, 내가 맞고 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내 탓도 아니었어. 이거는 분명히 때린 사람 잘못이고 그 고통을 내가 받았던 거지… 그래서 보통 여자가 잘못해서 맞지,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게 변했지. 굉장히 큰 변화예요.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죠.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평화가 이거구나 해요”.



### [ 참여자 3의 이야기 ]

견뎌내기: 천천히 갈등이 드러나고

참여자3은 현재 53세로 한부모가 된 지 13년 되었다. 1남 2녀의 둘째로, 어린 시절에 따뜻하고 자상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사에 노력하는 편인데 비해 아버지는 무기력해서 부모님의 사이는 안 좋았다. 어머니는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늦도록 바느질하는 등 생계와 관련된 많은 일을 했는데, 바쁜 중에도 항상 따뜻한 도시락을 오빠 교실에만 갖다 주었다. 그런 차별은 있었지만 딸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고 자식을 믿어주는 편이어서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쓰며 자랐다. 26살에 한 마을에 사는 지인의 소개로 4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책임감이 무겁다는 말을 자주 하는 장남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나들이 가는 걸 귀찮아하고 짜증내니까 같이 다니기가 불안해 나중에는 아예 말하지 않고 아이들만 데리고 바깥활동을 하였다. 참여자3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편이고 남편은 여자가 의견을 내는 그 자체를 힘들어 해, 결혼생활 중에 잔뜩들이 조금씩 생겨갔다.

“내가 불편했던 게 그 사람이 자기 집은 되게 중요하고 그냥 너는 우리 집에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 내 형제도 중요한데 다 무시되는 거요. 그냥 따라오면 되지 하는 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의견을 내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또 나름대로 주장이 있잖아요. 존중 받지 못하고 나를 나로 봐주지 않으니... 내가 한 마디 의견을 냈을 때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다 무시되는 거죠. 여자가 무슨 말이 많으냐고 일단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벽을 넘어서: 내 자리에 서 있기 위하여

결혼생활 10년쯤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던 중 결혼생활 14년 즈음 일어난 남편의 외도 사건은 아이들에게도 알려져 큰 상처가 되었다. 이 일의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별거를 했지만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남편이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 실망스러웠다. 이혼 얘기가 오가자 시가와 남편이 외도 사건 때와는 달리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 이혼한 직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이 많이 쓰였고 어쨌든 주위에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싫은데다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람이 없던 일처럼 딱!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힘들었겠죠.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쪽인데, 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것 갖고 울고 난리나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내가 힘들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남편이 예전부터 힘들다 버겁다, 나 못하겠다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터져버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중략) 이혼한 걸 숨기거나 남 눈치 보는 것 없이 그냥 살고 싶은데, 어쨌든 아이들은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살릴까 싶어 공부방을 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혼자라는 거 알면 어떡하지. 깔 볼 것 같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저 선생님 이혼했다는데 몰랐네, 이런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싫었죠”.

#### 삶의 주체가 되기: 그냥 나는 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중 산책길에서 만난 한 여성의 권유로 모임에 갔는데 여성단체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그 모임이 결성되면서 구성원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동지 의식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여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생겼으며, 그럴 수 있음이 즐거웠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며 장점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이혼 후에도 여성단체의 한부모 자조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 교류하며 한부모 활동가로 지내고 있다. 한부모가 된 후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가족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감이 생긴 것과 자신의 욕구에 따라 도전해보는 용기와 자유로움이 생긴 것이다.

“자유롭더라고요.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났구나. 맘먹느리로 행동 하나 하나 다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누가 그 집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 것 없는 그런 거. 이제는 정말 어느 한 사람의 아내도, 어느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엄마면서 한 여성이고, 그런 자유로움

이 되게 커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편안했어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함이 그전에 있었다면 일하게 되니까, 뭘 해도 먹고는 살겠구나, 조금은 편안해져요. 그런데다가 한 부모 모임은 진짜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데죠, 내가 제대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단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중략) 제일 큰 차이가, 지금은 음...그냥 나는 나, 나는 나일 뿐이다”.

#### [ 참여자 4의 이야기 ]

##### 견뎌내기: 무기력한 하루하루

참여자 4는 현재 48세로 한부모가 된 지 8년 되었다. 2남 1녀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어머니로부터 여성답지 않다, 남자는 조용조용하고 상냥하고 순종적이고 나긋나긋한 여자다운 여자를 좋아한다, 너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난 여잔데 뭘 여자답게 행동해야 되냐고 속으로는 반문했지만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말을 하진 못했다. 아버지가 딸 하나라고 큰 지지를 해주었으나 아버지의 술 때문에 사건이 많아 반감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난 두 살 연하인 남편과 32살에 결혼했다. 아이가 생기면서 일단 일을 그만두었다가 아이가 4개월이 됐을 때 시간제로 일했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의치증으로 대인관계가 단절되었고, 남편의 도박에 따른 카드빚이 늘어나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었다.

“제가 뭘 해도 남편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못 맞췄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작은 아이가 생기기 전에 한번 유산이 됐어요. 싸우다가 그 사람한테 너무 추궁을 당해서... 그러면서... 무릎을 짚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제가 미동도 못 하겠는 거예요. 꿈쩍을 못해, 고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엄마도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갈등 상황이 되면 제가 구석을 찾아가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또 이상한 짓 해, 저거?... 저는 아무것도 보기 싫은 거죠. 저 혼자 가만히 처박혀 있으면 좋겠는 거죠. 하루하루 죽어가는 걸 느꼈어요”.

### 장벽을 너머서: 새 살이 돌아나려면

부부싸움이 점차 위협적인 폭력사건으로 번지게 되면서 둘 중 한명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겠다는 절망으로 괴로웠으며, 큰 아이가 7년 동안 폭력적인 환경에서 불안이 높은 아이로 자랐는데 작은 아이마저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남편을 피해 서울 쪽 쉼터를 찾아가 상담하고 자발적으로 입소한 뒤 이혼과정을 치뤘다.

“어느 날 칼을 제 앞에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칼로 위협한 거죠. 저보고 죽이네 이려고 그럼 제가 죽여… 나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죽여,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아이인 거죠. 만약에 나를 죽이면 살인자가 될 거고, 난 죽었으니까 아이는 살인자의 아이가 될 거고 엄마는 없는 아이가 될 건데 (중략) 기본적으로 아이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이 사람이 직장이 불안할 때 싸움이 더 많았으니까, 그 고비를 넘기면, 안정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큰 아이가 7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고 커서,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작은 애마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더라구요”.

### 삶의 주체가 되기: 함께 걸어가는 길

이혼이라는 상태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돌보는 자율성을 찾는 해방이었다. 고단했던 결혼생활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는데, 그 고통이나 힘듦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성장해 있을까, 자신의 삶을 고민했을까를 떠올려보면 그 8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혼을 통해 어린 자기를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있는 것도 축복이며,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한부모 경험자인 자신이 앞서서 다른 한부모들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결혼생활의 난관이 지금의 저를, 사람을 만든 거죠.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 시련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었겠다… 저는 사실 저희 둘째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는 둘째만 아니면, 39살에 낳았으니, 너가 날개 달고 살았을 텐데 너 발목을 잡았다고 하지만 저는 제 새로운 인생을 개척했다

고 보거든요. 저희 애들 둘이 아니었다면 한부모 활동 같은 이런 고민도 안했을 거고, 그냥 나름대로 돈 벌고 살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관계성… 인간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생겼어요.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키우면 아이들이 내 손이 덜 필요하고 독립할 수 있을까… 여성 한부모로 사는 것 참 어렵잖아요, 일단은 책임감… 아빠 역할도 같이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부담감만은 아니라고 봐요. 애들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니까. 애만 보고 살지는 않거든요. 제 미래를 위해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교육 계속 쫓아다니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 [참여자 5의 이야기]

#### 견뎌내기: 주변인의 일상이 되풀이되고

참여자 5는 현재 51세로 한부모가 된 지 10년 되었다. 2남 2녀 중 오빠가 있는 장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는데 저항하다가 더 맞고 온 식구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어린 시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사람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자신에게 반찬 간을 보게 했던 건 소중한 기억이다.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던 그 일로 큰 딸인 자신을 인정해주고 의지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어떤 기억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시부모하고 일가족이 다 잘 살도록 지휘하는 게 만며느리의 역할이니까 만며느리로 가서 보란 듯이 화목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남편을 만났을 무렵 암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남편하고 결혼할 줄 알고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동생들한테 아버지 같이 잘 해주는 남편이 고마웠다. 하지만 남편은 누나 두 명과 여동생 두 명이 있는 집의 유일한 아들로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을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에 짓눌려 마음고생을 꽤 하며 살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졌잖아요, 남편이. 친구들이 12시가 다 된 그 시간에 도박, 화투, 카드… 결혼하고 바로 그랬죠. 재미삼아 친구들과 어울려가 지고… 그래서 아주 그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죽을 때까지 그랬죠. 말해봤자 안 되고… 고쳐지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게, 테니스를 그렇게 열심히 치고 도박은 왜 못 끊을까, 사는 재미가 별로 없었을까… 무력해 보이는… 도박은 질병

같은 건가 생각했죠. 그걸로 많이 싸웠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했고 안 했음 좋겠어 이 정도, 그게… 우리 어머니가 입이 말할 수 없이 거칠고 행동도 과격하고. 저는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질려서… 그런데다가 언젠가 사촌 형님이 애를 못 낳을 거 같다는 소릴 들은 시어머니가, 씨받이라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씨받이라도 들어서 아들 낳아야지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아,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섭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위기감이 들었죠”.

### 장벽을 너머서: 외로움을 등에 업고

결혼하여 남편의 사무실 일을 도왔는데, 가족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신과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진 남편과 비교하는 시집살이가 상당히 고달팠고, 항상 뒷전에 밀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눅 든 채 살았다. 남편이 냉랭한 편이어서 무관심하고 낮은 타인처럼 느껴졌던 남편에 대한 잔상은 깊은 외로움으로 투영되어 있으며, 3년간 암 투병하던 남편과는 결혼생활 17년 만에 사별하였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나 사별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너랑 결혼 안했으면 우리 아들 저렇게 안 됐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살아남은 여성에게 전가하는 부당함에 저항하고 화해하는 일이 숙제처럼 남아 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약이 오르는데…누가 오면 우리 막내 시누이가 우리 애 아빠랑 대화가 되니까 저는 항상 뒷전에 밀려 있고 제외가 되는 거죠.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못살겠다, 헤어져야겠다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건… 우리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심하게 하셨잖아요. 산후조리해주실 때 큰애가 많이 먹고 토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말씀 드렸더니, 어머님이 밥상을 탁 놓고 나가고 안 오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남편이 나서서 저를 옹호해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서운했죠, 정말. 서운했던 게… 남편이 화나면 말을 안 해. 길면 한 달 가까이 말을 시켜도 대꾸를 안 해요.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일 때문에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해요. 제가 질려 죽을 거 같잖아요, 답답하니까 나가서 시장 돌고 밥 때 되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면 영락없이 막내 시누이가 와 돌이 웃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있고…애 낳고 살았으나 내 자리는 없었어요”.

### 삶의 주체가 되기: 내가 나를 인정하기

지금은 1남 2녀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사별 후에 사회교육원, 학사과정,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자원이 되어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년인 지금이 만족스러운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감은 어떤 일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뜻하며 그런 자신을 꽤 좋게 느끼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함은 어렸을 때도 인정 못 받았고 결혼해서도 자기 자리가 없던 경험에서 벗어나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한부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사회적 편견과 한부모 정책 등에 대해 한부모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낼 조직과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인관계가 편해요. 전에는 결혼생활하면서 얹매어 있었구… 흠 잡히면 안 된다는 게 신경 쓰이고, 애 아빠가 되게 친절했어요, 남들한테는. 나한테는 무뚝뚝, 웃지 않으면 이목구비가 크다 보니까 로봇 같을 때가 있어요, 차갑게. 그리고 화났을 때는 내가 말해도 대꾸를 안 하고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런 것들로 부터 놓여 남을 의식하는 나에서… 나로 살아가는 싶었죠. 작년인가? 연말 정산할 때 팀장님이 놀라가지고 남편 없어요? 하세요. 네, 남편 없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한 거 그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편한 거 있죠?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편했어요.(중략) 요즘 많이 생각해요. 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재계약 문제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것도 있고 늘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올해 재계약하면서 임금이 많이 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새삼새삼 느끼게 되요. 임금이 올랐다는 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죠. 가능성?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커졌죠. 그게 자신감이 붙었죠. 복합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도 별로 인정 못 받았죠. 결혼생활에서도 내 자리가 없다는 생각.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인정한다는 거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 [참여자 6의 이야기]

견뎌내기: 빈자리에서

참여자 6은 현재 47세로 한부모가 된 지 5년 되었다. 2남 1녀 중 막내로,

두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노동하고 힘들어 지쳐 있었고 9살 위인 작은 오빠는 공장에 다녔으며, 11살 많은 큰 오빠는 집에 있었지만 몸이 약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해 늘 혼자였다.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오빠를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상당히 위축돼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존재감 없는 곳에서 그냥 견뎌낸 쓸쓸한 시간이었다. 2남 2녀의 막내인 남편은 1살 연하로 직장 거래처에서 자주 만나 낯설지 않아서 결혼하게 되었다. 두 사람 다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결혼한 그 해에 남편이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해 결혼생활 13년 동안 7년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다가 이후에 남편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과 고통을 호소해 급성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큰 슬픔도 못 느꼈던 것 같고, 자신이 두 살 때 친정아버지를 잃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것인지 잘 헤아리기 어려웠다.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 저도 그렇고 다른 여자 직원들도 그냥 뭐 남자 직원이 시키는 거 하거나, 차 접대하는… 중요한 것 보다는 좀 사소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구나 했어요. 자존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만이 떠오르면 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능력이 좀 있었으면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았을 건데… 못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 장벽을 넘어서: 마음을 열고

사별하고 나서 처음에는 밤마다 울었고 점차 남편의 부재가 실감나기 시작해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정서적으로 피폐해질까 봐 두려웠다. 게다가 한 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의식되면서 아이들 엄마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는 무게감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첫 아이 출산 이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사별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시가의 경제적인 도움도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애들 키우려니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엄마 얼굴을 계속 봐와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아서 한부모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의논할 사람이… 짐이 너무 무겁다.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네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 의논하는 대상이 없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다가 한부모를 보는 사람들의 눈, 그 집을 결손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부모가 있다 없다는 차이가 아닌데, 제 생각이 그렇더라도…그것은 시선이니까, 저렇게도 잘 지내네…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삶의 주체가 되기: 낯설지만 뜻 깊은

현재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사별 후에 한부모 모임이나 종교단체의 지인들에게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받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것도 주변에서 정보를 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으며, 다른 한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엄마는 39살에 사별한 거잖아요. 참 불쌍하더라고요…그 긴 시간을 어떻게 애들을 키우면서 혼자… 힘들었겠다,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참 대단하다. 그 전에 엄마를 내가 이해하던 것 하고 달라졌어요 (중략) 전에는 집 안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종의 네트워크도 생기고…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전에는 한정된, 내가 편한 사람들만 봤다면 지금은 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봐야 하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성도 생기면서 탄력적이죠.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애들하고 생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책임감. 거기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느껴요. 전에는 못 느꼈던… 내가 가장 달라진 부분일 거예요. 전엔 안 해주고 안 받고 이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마음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 받으면서 아, 고마운 사람이 참 많구나. 많이 느꼈구요. 지금은 받는 입장이지만 내가 좀 나아지면 나도 해야 되겠다”.

## [ 참여자 7의 이야기 ]

견뎌내기: 조용히 서성이는 불안

참여자 7은 현재 52세로 결혼 14년 만에 남편의 심장마비로 사별하였고 한부모가 된 지 8년 되었다. 2남 3녀 중 셋째로, 전형적인 시골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성장했다. 아버지 형제 9남매가 다 같이 살았고 늘 집안은 북적거렸다. 위아래 서열이 있어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각각 식사를 했다.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더 지지적이었다. 아침에 부엌을 가보면 오빠가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항상 대화를 하고 있어 좋아보였고 부러웠다. 29살에 1살 많은 남편을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하였다. 결혼 10년쯤에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자신이 가정경제를 책임졌고 2년 반쯤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폐인처럼 살아가는 남편을 1년 정도 돌봤다.

“결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죠. 큰 아이 낳고 살면서 글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런 거였나? 그때는 남편과 관계도 좋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느끼게 이혼… 이혼? 아, 그래, 이혼… 뭐냐면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나는 지옥 같았다… 2년 반 동안 밖에서 생활이 집에서 그대로 나와 저는 그게 막 굴욕스럽고 아주 더럽고… 그런데 치밀어 오르는 데 뭔가 표현은 계속 안 되구, 대화를 하는데 계속 꺾꺾 눌러놓은 거가 완전 터졌어요 (중략) 우리 관계는 회복이… 그전 같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은 하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신기한 게 부부관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싫더라구요. 나가서 딴 짓 해왔는데 내가 이 사람과 왜 관계를 해야 하나? 그게 힘들었어요. 그전에 속삭여 돈 때문에 힘들게 했어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이후에는 그런 거로 더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장벽을 너머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가출했다가 돌아온 이후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한 남편이 돌연사했으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의 충격, 사망한 남편에 대한 연민 등으로 한동안 고통을 추스르기 어려웠다. 사별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종교

단체의 사별자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참여자들과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았으며 이후 차차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창피하고… 남편을 내가 잘 못 살폈나… 남편을 앞세운 여자라고 측은하게 보는 그 자체가 견디기 어렵고…더 강한 척 아닌 척 힘들지 않은 척, 나는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어…그런데 속으로는, 너무 하고 있니 그거 아니잖아, 진심이 아니야 이걸 가면이야 너… 태연한 척하는데 실상은 너무 울고 싶은 거죠. 기진맥진해서 막 터졌죠, 울음이 (중략)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아버지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엄한테 호통 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잘 해야 되겠구나, 저런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했어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야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감추니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건데 부끄러움으로 내비춰진 거죠”.

#### 삶의 주체가 되기: 작은 발걸음으로 내딛기

지금은 1남 2녀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결혼생활부터 줄곧 해온 병원 사무직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별 후에 부부관계의 소통과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앞으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돕고 싶어서 상담 공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부모로 살면서 자신감이 달라졌죠.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행동해라 말하죠. 자신감은 자기를 돌보는 일에서 시작해야죠, 그걸 늦게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늘 남을 먼저 배려해라, 그게 겸손이 아니예요. 자신감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 한대요. 이야기하면 집중하게 하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의연해졌다는 거, 용기가 많이 생겨서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받아줘요. 대화 해보는 거죠 (중략) 멀리 떨어지면 전체가 보이니까…누구나 실수는 한 번씩 있는 거니까, 남편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나, 많이 성찰 했죠. 남편을 좀 더 세심하게 봐줄 걸. 관심 두고 이야기할 걸 (중략) 뭘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까…남들을 위해 필히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 공부도 하도 싶고…가족 안에서 관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상담해 주고 싶어요”.

## [ 참여자 8의 이야기 ]

## 견뎌내기: 순응을 미덕으로

참여자 8은 48세로 한부모가 된 지 7년 되었다. 2남 4녀 중 장녀로, 어머니의 말투가 좀 차가운데 형제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약간 강압적이어서 어머니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않겠냐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었다. 부모님이 시골을 벗어나라면서 소도시에 집을 구해줘 고등학교 때부터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첫째라 통솔력이 있는 편이고 동생들도 잘 따라주었다. 하지만 26살에 두 살 위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도리고 미덕이라 생각해서 자신이 불편한 것은 드러내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우리가 밖으로 나와 가지고 다 각자 사니까 여자가 이래야 돼, 그냥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성장했던 것 같아. 남자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의 역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 돌보고 하는 거야 생각하고 나는 결혼을 하면서 전형적인 고정관념이죠, 결혼하고 나서 누가 그만 두라는 소리를 안했는데 직장을 그냥 그만 둔 거예요, 여자는 살림 살아야 되니까 일 해야겠다 그런 생각 없었지. 가장이 일을 하고 들어온다,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남성이.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되나, 그게 마치… 주인 대하는 거 같았다니까요…그 쪽도 원했으니까 꺾꺾 맞춰서 한 거죠”.

## 장벽을 너머서: 답답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결혼 14년 만에 3년간 암 투병을 하던 남편과 사별하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친정 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방 운영 등을 하며 차차 적응해 가는 동안, 초기에는 주변을 의식하게 되는 일상이 꽤 불편했다.

“42살에 돌아갔어요. 그 전에는 애 아빠가 가게를 했어요.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정말 막막했죠. 그 동안 나는 너무 작은 공간, 가정주부…그 공간에만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격지심이 있대요, 나를 좀 깔볼 것 같은? 아줌마들

끼리라도 혼자 사는 거 우연히 알게 되면 괜히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불쌍하게 보는 것도 있고 예전이랑 다르게 조금은 우습게 본다 그런 거요. 그냥 안됐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나는 불편하고 싫고 어색한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 사별이야, 혼자 살아. 아는 순간부터는 말도 스스럼없이 안하고 서로 대화가 끊기는 거 느끼는 거죠, 분위기 상”.

### 삶의 주체가 되기: 배우면서 거듭나기

사별 후 3년 만에 자신이 위암 수술을 받았다가 회복하였고, 현재 무기계약직 공무원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의 투병생활과 자신의 위암 수술을 계기로 삶의 방식과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 최근에 한부모 활동가 교육을 받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에서 치유를 많이 받고 원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직장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어서 현재 다니는 대학의 농학과를 선택하였다. 앞으로 이 공부와 관련된 일을 구체화시킬 생각이다.

“혼자되고 나서 공부방 하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힘든데...열심히 배워가며 했죠, 저는 특별히 잘한다기보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한계단한계단 올라가는 그 가능성. 그 전에는 도전할 생각도 안했고 도전할 필요도 없는데 이젠 무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졌어요. 혼자되고 나서 무엇이든지 배워놔야 어디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지금도 원예 쪽으로 조금 더 배우려고 농학과를 갔어요. 배우는 거 즐거워요 (중략) 중년이라는 나이도 의식 안할 수가 없죠.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내가 뭐해서 취업이 가능할까? 지금은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만 두게 되면 이게 연계가 가능할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새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많이 변한 게요, 감사죠.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린 게 말기에 발견이 안 된 게 감사하고 수술입원도 속전속결로 됐잖아요. 그리고 살아 있잖아요”.

## 2.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경험의 의미

내러티브 탐구의 기본 틀인 상황, 시간성, 상호작용의 삼차원의 탐구 공간과 이 탐구공간 안에서 내적, 외적, 과거, 미래의 네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의미를 통합하여 재범주화하였다. ‘견뎌내기’의 경험은 ‘주체 안에서 타자로 살아옴’과 ‘돌봄의 버거움을 인식함’이라는 의미가, ‘장벽을 넘어서’의 경험은 ‘문제는 모두 내 잘못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기’와 ‘관계를 방해하는 힘과 마주침’의 의미가, ‘삶의 주체가 되기’의 경험은 ‘삶에 대한 책임감’과 ‘관계 돌봄을 재정의함’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삶과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1) 주체 안에서 타자로 살아옴

#### (1) 배움의 기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남

성역할 내면화 과정에서 여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정체성이 요구된다. 가족의 유대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희생이 기대되고,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남자 형제를 위해 양보하는 역할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생애 초기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음에 불편하지만 순종을 미덕 삼아 성장한다.

“언니, 오빠, 나, 남동생 둘인데, 오빠가 서울에서 재수하고 남동생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너는 서울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대학 가면 좋겠다, 너도 서울 간다 하면 내가 벅차…아버지가 항상 딸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대학교는 집 근처서 다니고…남자형제들한테 경제적 건 말 안하고”. 〈참여자 2〉

“당연히 인문계 갈 생각했는데…아버지가 너는 말이고 동생들 있으니 실업계 가서 빨리 취업하라고…굉장히 충격이었죠”. 〈참여자 5〉

“중학교를 졸업하고 야간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밑에 한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아버지가 독자니까 그 남동생이 장손인 거죠. 나는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돈 좀 벌어서 야간에 학교 가고 그랬는데 동생 학비를 댄 거죠. 집안이 어렵다는 걸 빨리 알아차렸는데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참여자 1〉

## (2)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함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보아온 부모의 역할을 동일시하면서도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엄마처럼이란 희생하는 고단한 삶, 수동적인 삶, 남편에게 존중과 사랑을 갈구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함처럼 자기가 상실된 여성의 삶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결혼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남성은 가장이고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분담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적극 수용한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 가부장제의 결혼관계에서 여성은 남성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주된 의무이고 출가외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친정 식구들의 명예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험적 연구들은 여성의 성역할 내면화 과정에서 여성은 거절주장(refusal assertion)을 삼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의 표현을 억제하고 전체의 조화를 위해 행동하도록 사회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에 대한 비주장적 기대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적 성문화는 남성이 자신의 성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남성다움의 전형으로 관용하지만, 여성은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범주화하고 제한한다. 결혼관계에서 아내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거나 자기주장이 강해서 불편한 여성으로 규정되며 여성도 남성을 능동적인 성 주체자로 받아들인다. 참여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결혼관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진 것이기도 하며, 중년여성은 성적 욕망이 결여된 존재라고 보는 사회적 신념과도 관련되는 이 같은 성역할 내면화가 여성의 삶을 가리고 여성도 여성 자신을 소외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엄마가 계속 일을 하셨는데 아, 엄마처럼 재주 많으면 일도 집안 살림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게 사는 구나. 엄마처럼 저렇게 일 안하고 싶단 생각 많았어요. 남자가 돈 벌어오고 내가 살림하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엄마 하는 말이 일복 많으면 고달프다, 어디 가서 나서지 마라 너무 힘들다,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무의식중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굳이 꼭 사회 활동해야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참여자 3〉

“어린 시절에 엄마는 항상 아버지에게 순종. 아버지가 리드하면 엄마는 따라

가는 걸 보고 여자는 그래야 한다 배웠죠, 말씀 안하셔도, 자기표현 안하고 묵묵히 일. 아주 어렸지만 엄마가 너무 일을 한다는 게 불만이었죠, 속으로. 아침밥 먹고 밭에 가서 일 하면 저녁에 오시고...어려서는 항상 그게...가족이 다 모일 때 고모는 밭에 안가고 여자는 엄마만 가, 왜 우리 엄마만? 그게 마음에 안 좋게 있었어요. 그래도 여자는 집에서 일 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나무해 오고, 그런 삶이 고정관념이 됐죠”. 〈참여자 7〉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엄마는 일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제가 밥했죠, 되게 궁핍하니까 서로 늦게 오고...당연한 걸로 알아서 그냥 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고등학교로 가면서 옆집 언니가 공장에 다녔는데 그걸 보고 필요하니까 그냥 가야지 그랬어요.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돈을 번다는 그런 생각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음...여자인가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긴 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 2) 돌봄의 버거움을 인식함

여성은 결혼과 함께 더욱 더 이타적인 삶을 요구받게 되고 여성 개인의 인간관계는 단절되기 쉽다. 남편 중심의 관계를 돌보는 것으로 결혼한 여성의 정체성은 의미화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더욱 더 매진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도록 구조화된다. 참여자들이 겪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불안과 불신의 상호작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갈등을 외면한 채 가족을 돌보는 일에 더 의지를 가져보지만, 결혼관계의 유지는 녹록치 않았다. 참여자들은 결혼관계에서 타인을 우선 돌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소외되는 경험과 그 힘겨운 과정에서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결혼관계와 돌봄에 대해 되돌아본다. 각자의 환경과 삶의 궤적, 한부모됨의 사유와 적응 과정이 저마다 다름에도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 그것은 생의 초기부터 경험한 여성 성역할의 내면화 과정과 한부모됨의 외상 사건 경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실감과 이별의 맥락에서 나타난다.

“아직 애 없을 때 남편 사무실일 끝내고 집에 가잖아요, 둘째 시누이 애를 어머니가 봐줘요, 저희 집에서. 내 집처럼 느끼지 못 했어요. 어머니랑 사는 게 힘



들었어요… 산후 조리할 땐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는 왜 우리 집에 시집와서 날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고,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일찍 죽어가지고…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참여자 5〉

“사별하기 전인데 외도하느라 2년 반을 생활비도 안주고 아예 그냥 나갔죠. 외국 간다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연락을 취했는데 안됐죠. 중간에 몇 번 왔다 갔다 아예 안 오구요. 너무 황당한데 결혼 초에 불안했던 뭔가가 갑자기 갑자기 탁 그걸로 터져 나오는… 남편이 가출했다가 들어 왔더라구요… 싸우다보면 웃음이 나요. 뭐냐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참여자 7〉

“애 아빠 아프고 나서는 서로 힘드니까 욕구가…근데 애 아빠는 아파도 있는 거 같더라고. 저녁 늦게 잠은 안 오지 그러니까 대리만족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힘드니까 똑… 떨어져서 자다 눈 떠보면 그런 영화 보고 있고, 남편 투병도 오래 했으니”. 〈참여자 8〉

“어머니 말씀이, 참아야 한다, 굳이 싸움 만들지 마라. 저도 웬만하면 비위맞추려 했고…저희 큰애가 딸인데 엄마아빠가 긴장상태고 싸우니 아빠한테 잘 안가더라고요. 남편이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둘째 있음 부부사이 좋아진다고 주변에서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둘째 낳아보자”. 〈참여자 4〉

### 3) 문제는 모두 내 잘못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기

중년여성 한부모는 결혼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되풀이되는 비슷한 좌절, 막연한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힘들이 과거 경험들의 축적임을 깨달아 간다. 결혼생활에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에게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사별한 경우는 남편의 도박, 외도와 가출, 시가의 정신적 폭력 등 결혼생활에 대한 갈등의 전경이 있었고, 이 전경들은 사별한 이후 자기인식의 변화와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 이혼한 경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과 그 폭력이 자녀에게 노출되는 경험으로 내면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깨닫게 된다.

## (1) 불평등을 일으키는 고정관념

근대의 결혼관계는 양부모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이상화시키고 (Gehart & Tuttle, 2003),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의 구도는 여성이 어머니 역할과 가족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통해서만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시킨다(이영자, 1993). 여성은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결혼생활 유지와 해소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는 힘겨운 결혼생활을 재고해볼 필요성을 여성 스스로 평가절하하게 되고, 갈등의 내면적 사유가 끊임없이 묵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남성의 폭력과 외도에 대해 ‘남자들은 한번쯤 그럴 수도 있다’고 관용적이고, 여성은 ‘내가 뭘 잘못 해서 그런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여기고 인내하도록 요구한다. 여성이 갖는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태도가 강할수록 배우자의 외도 사건에서 자기 존재의 위기를 더 크게 느끼고 사회적 기대에 따른 여성성과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인 의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결혼하면서 나를 들어온 사람, 여성, 며느리는 손자보다 또 그 다음이구. 남편이 직장 일하고 나는 가사 노동하지만 난 항상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을 쓴다… 이렇게 써도 되나? 날 위해 쓰는 건 스스로 눈치 보이고, 돈 벌지 않고… 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참여자 3〉

“이상하게… 맞아서 아플 때는 남편이 미운데 몸이 좀 나으면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꼭 내 목소리가 커지면 싸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화나게 해서 때리는구나. 내용을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된 게 확실한데, 이 폭력을 행하는 것은 내 탓이구나 생각했죠”. 〈참여자 2〉

“너무 심하게 때려요, 생명의 위협 느낄 정도로 둘만 있으면 때려. 마음에 안 들면 손들고 서 있어라, 자기 밑에 사람 대하듯. 자식도 아내도 소유물(눈물) 맞을 짓 안 했어요. 내가 짧게 한 말도 열등감, 너는 뭘 생각 하고 있냐? 널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고 항상 내 탓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맞았지”. 〈참여자 1〉

## (2) 성역할 기대에 대한 불편함을 자각

참여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참을성 있게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충실해 왔으나 자기희생적인 배려심이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하게 된다. 사회적 규범에 따른 역할 기대가 불편하다는 여성 개인의 깨달음은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작은 균열이고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 상태가 왜, 무엇을 위해 계속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구체화된다. 또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화, 분노, 미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폭발적으로 터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다시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되돌리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감정표현을 포함한 자기표현을 억제하도록 요구되는 사회적 압력이고, 감정억압은 희생이 전제된 감정노동임을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 이것은 불평등한 의사소통으로 유지해온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양부모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고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 내면화된 성역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촉진됨으로써 여성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감을 뜻한다.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밖에 자꾸 눈 돌린 게 나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한 달을 이 사람을 피했었어요, 잠자리를… 이 사람이 나가고 안 들어오니깐 그게 내 책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7〉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행동, 말 자체가 어, 너는 이 집에 시집왔으니까 우리 집 식구일 뿐이다. 그냥 집에 밥숟가락 더 얹는 사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누구네 집안에 시집온 사람. 친정이랑 시댁이 가까이 있는데 시댁을 가야 친정을 갈 수 있어요. 따로 친정만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 너는 이 집하고 결혼했는데 너네 집에 왜 가려고 그러냐…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죠. 잔소리 말고 하자는 대로 해! 여자가 뭐 이래, 이런 건데. 나를 나로 봐주지 않는 거죠. 나는 혼자하려면 눈치 보이고, 남편은 사소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묵살하고 무시되고 넘어가 버리는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힘들었어요”. 〈참여자 3〉

“어렸을 때 엄마의 그 피드백…안 좋았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너가 안 아팠으면 우리가 집 세 채는 샀을 거다, 아픈 게 내 탓이 되었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못사는 거가 된 거죠. 공부도 못하지는 않았는데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아닌 거죠, 이 아이가 좀 딸 같았으면 좋겠다는…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늘 나를 부정한 거죠. 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닌 것처럼. 딸다운 딸이 아니니까 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있는 거죠”. 〈참여자 4〉

#### 4) 관계를 방해하는 힘과 마주침

참여자들은 한부모가 되고 나서 현실적인 세상의 장벽과 마주치며,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남녀 성별 분업과 유교적 전통 요소들이 결합된 희생적인 모성 담론에 따라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견고한 사회구조에 직면한다. 그리고 홀로된 한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자신의 외부와 내부에도 존재하므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자신과 한부모 가족의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소수자로서 사회적 배제와 맞닥뜨림

참여자들은 남녀 성별 분업적 노동시장 구조가 한부모 여성 가장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낮은 지위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의 장벽을 구축해왔음을 체감하며 제도적 차원의 제한을 인식한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자녀교육과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정책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한부모에게 다 하라는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거, 일, 가사노동도. 첨에는 그냥 있다가 혜택혜택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고, 배우자 공제도 배우자 있어야만 해, 신기하죠.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 없는데 있는 사람을 또 구제해주는 거죠”. 〈참여자 7〉

“한부모 가족이라고 나는 통신비 할인 받은 거, 애한테 얼마 나온 거 그거고.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는 2년을 내 암 진단비로 산 거죠…수당이나 지원이라든지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까…굉장히 불합리하죠”. 〈참여자 8〉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 가족수당 차이 나는 거 할 수 없지 그랬는데 퇴직금도 차이 나. 남편과 시어머니 없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떼고… 제가 어처구니없지 않냐, 이거 문제 있다 그랬죠. 남편 있어서 수당 주면 나는 남편 없어도 국가에 별 도움 안 받고 살아왔는데, 국가 위해 자원 키우고 있는데 국가가 이 과정에 참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말에 아무도 동조 안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참여자 5〉

## (2) 홀로된 여성에 대한 타자들의 시선

참여자들은 여성 한부모에 대해 이혼녀, 참을성 없는 여자, 남편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 팔자 센 여자, 과부, 남편 잡아먹은 년 등 언어적 폭력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여성은 보호해줄 남성이 있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것이고, 결혼 여부와 남편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사회적 통념의 억압적 편견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가족과 형제, 친구의 외면으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 같은 고립감은 자신의 대인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지지적 관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절감한다.

“옛날부터 이 얘기는 아주 그냥 겁 없이 하죠. 남편 잡아먹었다고. 남편 앞세운 여자… 어른들한테 듣고 자란 세뇌죠. 그거는 잘못 났죠. 난 여자 죽고 혼자 된 남자한테 여자 잡아먹었던 소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참여자 2〉

“자기 생각을 강요를 해요. 인색하게 느껴져요, 엄마가. 너그럽지 못하게…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래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우, 엄마는 왜 내 생각은 안할까, 예를 들어서 남편 가고 없는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나. 날 좀 생각해 주지, 이런 건데. 잘해라, 너 잘 지내라가 아니고. 시어머니 어떠시니, 잘 안 드셔 그러면 갈 때 뭐라도 사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게…도리만 요구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걱정 별로 안 해주고…저는 엄마가 나한테 정서적인 거든 뭐든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하고 네가 잘해라, 엄마 노릇 잘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 그게 불편한 거죠”. 〈참여자 6〉

“한부모 모임은 바로 내 문제잖아요. 상당히 힘이 됐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배우면서 삶을 다른 방식으로 알아보는 거죠. 수다도 떨고 힘든

과정들 다 오픈하고, 어디 가서 한부모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은 지지, 충분히 잘했고 네 탓 아니다, 비난 안하고 공감해 주는 관계거든요”. 〈참여자 3〉

“무조건 이혼 않는다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다… 가문의 망신, 이혼하는 순간 죄인이 되니까. 제대로 못살았다는 죄책감. 정상가족으로 못살았다 평가하다 보니까. 이혼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 몰라야 된다고. 죄인도 아닌데 쉬쉬? 외국 가 있다고 하니까 너도 그래… 끝없이 강요당하는 기분”. 〈참여자 4〉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한부모라는 사실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부모임을 밝히거나 직접적으로 부딪쳐 해결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한부모가 되고 나서 이전에 이혼 가정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변화되었다. 사별과 이혼이라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비슷하거나 다른 점들을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자신들이 먼저 한부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사별해서 남편 잃었다,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처음 일하는 데서 거짓말하게 되는 게 싫어 말했더니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짐작은 하고 있었다며 아무한테도 말라고, 자기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간 다 싶으면 가서 문 닫고 소리 좀 낮추라고. 도대체 왜 감춰야 하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참여자 5〉

“지금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숨기라는 이야기 안했는데 초기에 중학교 때까지는 스스로 숨기더라고요. 친구한테 우리 아빠 없는 것 다른 애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그랬다고”. 〈참여자 8〉

“제가 사별하면서 이혼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회의 보는 눈들이 이상하죠. 저 여자 좀 참고 살지, 왜 저렇게까지 해서 혼자…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는 웬만하면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혼할 수 있어요. 좋은 모델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굳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혼자라도 충분히 당당하게 키울 수 있다고”. 〈참여자 7〉

## 5) 삶에 대한 책임감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단독 책임이 과다한 역할 긴장의 측면이 있지만, 독립심과 의사결정 능력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도 기르게 된다고 인식한다. 책임감에서 오는 자부심과 보람이 자신이 보다 강인한 자율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여긴다.

### (1) 밥벌이의 준엄함

중년여성 한부모는 성차별적인 노동 분업 구조, 전문적 기술 습득에 소요 되는 시간과 경비, 노동시장과의 오랜 단절, 낮은 임금 등 현실적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역할 변화 중 하나는 재구성된 가족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고 경제적 자립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축되고 압박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성취한 독립심과 자율성을 토대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정신 차리기도 바빴죠. 애들은 커 가는데 버는 건 한정돼 있고 그 전까지는 보통은 번다 자신 있었는데 직장을 7년 쉬었고 혼자라는 게 위축되고 나이도 많고, 내 위치가 이것 밖에 안 되는구나 자꾸 주눅 들고”. 〈참여자 6〉

“애들 아빠 있을 때 애 아빠 사무실에 늘 나가 일 돕고… 사별하고 사회교육원 1년, 학사, 자격증 따고 그랬죠. 특히나 우리 막내가 제 첫 수입에 그렇게 좋아해. 그러다 재계약 무렵에 굉장히 마음 졸였어요. 애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장이지만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예민해 있고… 무겁게 봤죠”. 〈참여자 5〉

### (2) 자녀와 함께 걷기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공동체를 안전한 곳으로 받아들이고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비로소 가정을 자기가 자기답게 일상생활을 하는 곳으로 느끼고 가족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엄마이자 가장인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녀와 동등한 협력관계에서 상호의존하며 적절한 균형 맞추기에 집중한다. 이혼을 한 경우에 허탈감과 분노,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실패감을 겪지만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고통스러운 관계와 헤어짐으로써 차차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찾아 간다. 사별을 한 경우, 위축감과 외로움, 상실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찾는 기회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자녀를 소유개념이나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으며, 이타적 희생자로서의 어머니됨을 지양한다.

“애들이 한편으로는 부담도 됐는데 그래도 위로가 더 많이 됐어요. 같이 헤쳐 나간 시간이었으니까. 서로 힘든 것 이야기하면서 제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애들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참여자 8〉

“책임감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손녀가 생겼고, 가족이 한사람 불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가족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가족 이라면 전에는 공포,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지켜야 될 거였다면 지금은 끈끈함. 가족끼리 고민도 기쁨도 같이 나누는 이제야 진짜 제대로 편안한 가족애를 아는 거죠”. 〈참여자 1〉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우리 딸한테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물어봐요, 아빠 없어서 스트레스 안 받냐, 엄마하고 둘이 살아 창피하지 않냐... 우리 딸이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하대요. 책상이라도 자기 공간 있으니까. 유일하게 얻은 아주 큰 행복인 거죠. 너무너무 좋다, 딸하고 잘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자거든요”. 〈참여자 2〉

#### 6) 관계 돌봄을 재정의함

중년여성 한부모들은 역할 변화 과정의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가지며 이는 경제적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여성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과 서로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자기결정권과 소통의 힘을 확인한다. 또한, 여성은 관계를 돌보고 자신은 돌보지 않은 결과 자기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회적 성(gender)에 대해 새롭게 봄으로써 성역할 내면화와 사회구조적 압력의 관련성을 알고 남성과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한다.



(1) 소통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림

사회적 지지 관계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고립감과 사회적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지역사회 복지관의 홍보물을 우연히 봤다거나 가까운 지인들의 권유로 시작한 한부모 모임에서 참여자들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홀로된 자신의 삶을 독립심과 해방감으로 해석하며 존재감을 인정받는 경험을 한다. 이처럼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외상 치유의 과정은 소통의 즐거움과 더불어 자신이 가진 규범, 가치, 신념을 검토하고 개인적 경험이 사회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배워가는 길이 되고 있다.

“한부모 활동하고 자조모임하고 거기서 사는 거죠. 위축돼 있던 제 모습에서 결혼 전 내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죠”. 〈참여자 4〉

“사별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선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격…많이 살건 조금 살건 그 슬픔은 똑같다는 거죠. 공통적인 슬픔. 그 분들 위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 사람은 날 알겠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나만 슬픈 게 아니구나”. 〈참여자 7〉

“저는 먼저 말 거는 사람은 아닌데 ○○○씨는 저보다 훨씬 오래된, 혼자 사는 한부모이기도 했는데 저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한부모회에 가면 말 걸어주고 정보도 주고 굉장히 고맙죠. 어느 날 갑자기 바뀐 내 상황도 정말 싫는데 관심 가져주고 가르쳐주고 해보라 하고, 내가 지금은 받는 입장이지만 좀 있으면 나도 도와야지…관심도 가져주고”. 〈참여자 6〉

(2) 사회적 성(gender)에 대해 새롭게 봄

한국 사회는 타인과의 화목, 친척과 이웃 등의 관계적인 측면을 돌보는 것을 전통적인 여성역할로 기대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이 관계를 돌보는 타인지향적인 결과 정서와 행동에 제한이 따르는 것에서 발생하고(Helgeson, 2002), 중년여성들은 그물구조적 가족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역할 변화 욕구의 갈등을 겪게 된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자립과정에서 여성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고 자기비하나 이중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Klatch, 2001). 여성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직접

요구하지 않도록 양육되어 거절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단호히 행동함을 사회적으로 처벌하고, 전체를 위한 긍정적 상호작용에 관심 갖도록 사회화된다. 여기에 중년여성은 성적 욕망과 감정에 대한 느낌을 친밀한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성적 진실성이 결여된 존재라고 보는 사회적 통념 또한 존재한다(Mansfield, Koch, & Voda, 2000).

참여자들은 자기표현과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자기주장 억제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따른 억압이며, 가정폭력은 참고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인식한다. 자기주장과 관련해 성,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다 신중하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같은 차별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각하도록 권한다. 이것은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자기로 통합되는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진다.

“여자한테 기대하니까 맞춰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하는 그런 건데…딸은 조신하니 집에서 음식하고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랐지요? 나만 구속받는다 했는데 다들 구속받고 살더라. 남편 말이 첫째고 시부모 말, 젊을 땐 시가에 얹매여, 나이 먹은 뒤론 친정부모, 형제, 자식들한테 매여 빨리 오라가라”. 〈참여자 2〉

“전 이혼 몇 년차가 중요해요. 언제 회의 끝나고 가는데 애 아빠한테 11시쯤 전화가 와, 같이 살 땐 늦게 다니는 게 불가능했으니 받아말아 갈등하다 지금 밖이야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 아, 진짜 해방. 그 다음부터 자율적으로 살게 됐죠 (중략) 성에 대한 의식도 깨졌죠. 제가 도덕적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혼자됐음 수절해야 되고 재혼이나 누구 만나거나 생각 안 해봤어요. 애들만 열심히 키우고 살지 그랬다가 아, 싱글인데 만나도 되긴 해, 그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친밀한 관계 생기면 성관계를 할 수 있냐없냐 최소한 도덕적 갈등은 안할 거 같아요”. 〈참여자 4〉

한편, 여성은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모성성에 따른 책임감을 당연시하면서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부계 혈통 원칙이 가진 모순을 다시금 인식한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 안에

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gender의 관점에서 새롭게 봄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직장생활 어려운 거는 빠저리게 느꼈거든요. 인간관계에도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까 남성도 이해하죠...아빠역할 엄마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고 한 가정을 위해 경제력만 유지된다면 역할 구분 필요 없어요 (중략) 요즘 남자도 매 맞고 사는 사람 많다는데 평등의식이 없어 그래요. 내 주위를 봐도 여자는 가장이라는 사람한테 구속된 식구, 그냥 물건, 종속관계죠, 자기가 돈을 벌어도 나이가 들어도, 가정폭력 기관에 가 보니 10대고 20대고 70대 80대 할머니까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그건 보고 배워서 그러는데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봐요. 나는 우리 딸한테 너가 밥 먹은 그릇을 치울 수 있으면 해라, 자기 생각, 자율성으로. 그러면 종속관계가 완화되겠죠”. 〈참여자 2〉

“남자도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살죠. 경제활동하지 않으면 여자보다 남자한테 곱지 않은 시선들이 더 많이 가. 근데 결혼에서는 힘들어하면 남자가 먹여 살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었고, 힘들겠다 위로나 격려 없이. 그런데 지금은 바깥생활 힘든 거 아니까 이 사람 힘든 삶 인정해요...그때는 드라마나 책으로 나도 모르게 학습된 이상형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다 (중략) 모성애가 타고 났냐 있냐없냐 하잖아요. 약간 부담이기도 한데 아이들 키우기로 선택한 건 책임감일 수도 있지만 엄마가 뭐 그래, 그런 시선 의식한다는 거죠. 경제력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키우는 것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데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 같구요”. 〈참여자 3〉

## 7) 내가 있는 내 삶과 만남

참여자들은 중년인 지금의 평안함 또는 불확실함을 의식하고 삶이란 하나의 과정이지 정지된 상태라기보다 방향이며, 삶의 경험을 통해 내면세계를 통찰해야 할 때라고 인식한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결정하는 과정이 자기가 있는 자기의 삶과 만나는 경험라고 이해한다. 중년여성 한부모들은 성장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억압되었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게 됨으로써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으로 한 가족을 책임지고 한부모 자조모임 등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의 힘을 발견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좌절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겠다. 지나온 것은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자신감, 생활에 의욕이 생겼죠. 죽을라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다, 인생 공부도 최선을 다하면 달라질 거야. 나는 달라졌어요.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가정폭력 기관 가면 하거든요. 나는 자유죠. 해방, 해방됐다. 속박되지 않고 내 의사대로 내 자유대로 산다는 거. 떨리지 않고, 두려움 없어지고,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 나처럼 그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결정하는 데 도움 되라고…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잘 할 거야, 그런 거를 너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해요. 단호하게 결정한 것. 내가 죽어 있던 그 시절 내 삶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란 존재가 없던 세상.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삶은… 살아볼 만해. 재미있다. 지금은 내 삶의 질을 높이자. 건강해야 애들한테 짐 안 되니까 저 돌보는 거 확실히. 아침에 거울보고, 너한테 관심 가져라 말해요”. 〈참여자 1〉

“지금 제 삶은 자유롭죠. 길거리 가다가도 때때로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요. 혼자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예전만치 못해도 기분을 푸는 말도 해보구요(중략) 원치 않아도 누구나 한 순간 한부모가 될 수 있죠. 내 삶을, 한부모 삶을 이야기해서 다른 모습도 알려져 편견이 바뀌어야죠.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게,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죠”. 〈참여자 5〉

“나는 나로 사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건 남을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인 걸 배웠죠.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내 상처를 보면서 왜 그랬는지, 매듭을 하나씩 푸는 느낌…한부모만의 삶이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내 삶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 삶도 보게 되면서 한부모 삶을 보게 됐죠”. 〈참여자 4〉

“처음부터 남 돕겠단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고 즐거웠어요, 이런 삶이. 힘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힘을 주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불안에서 뭘 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살겠구. 독립적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대견하죠. 더 중요해진 건 내 욕구를 찾고 거기에 충실하고 행동한 거죠”. 〈참여자 3〉

이처럼 삶의 의미가 존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추구해 왔는지 발견하는 것은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참여자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의미화된 내러티브 안에서 삶의 지혜로움과 자기 성장을 확인하고 자기가 존재하는 자신의 삶과 만나고 있다.

#### IV. 논의

이 연구는 긍정심리학의 측면에서 중년여성 한부모의 긍정성과 강점을 발견하는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성역할갈등 이론을 토대로,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과정을 40세 이후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뒤 2년 이상 경과했고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재혼하지 않은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 8명의 내러티브를 통해 탐색하였다.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경험은 ‘견뎌내기’의 시간을 지나 자기와 세상의 ‘장벽을 너머서’, 그리고 ‘삶의 주체가 되기’의 이야기로 구성되었고, 이 이야기들의 통합된 주제는 ‘소외의 시간을 지나서 삶의 의미 찾아가기’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의 기본 틀인 상황, 시간성, 상호작용의 삼차원의 탐구 공간과 그 안에서 내적, 외적, 과거, 미래의 네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의미를 통합하여 재범주화하였다. 참여자들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경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들의 경험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 타인을 우선 돌보는 책임을 여성의 성역할로 내면화한 채 수동적으로 ‘견뎌내기’의 과정이었다. 여성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고정관념적인 역할 분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배종속 관계를 봐 왔으나, 남성 중심의 원리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여성이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는 인식하지 못했다. 참여자들도 양

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자기주장 억제를 여성의 성역할로 내면화하였고(하정혜·김지현, 2012), 결혼관계 안에서도 통제 당하는 사람으로 더욱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폭력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관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점차 사라져가는 상태(김혜련, 1995; 주혜주, 2005)로 견뎌왔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한부모됨의 과정에서 성역할 기대에 대한 불편함을 깨닫고 세상의 장벽과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의 표현을 삼가 했다. 하지만 거절 주장(refusal assertion)을 시도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자기주장 억제가 성역할 내면화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가부장적인 억압에 따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회복의 과정인데(노영주, 2001), 자기 인식의 변화가 한부모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최은화·이윤화, 2010; 한경혜, 1996)와도 일치한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존재가 결혼관계의 유지 또는 해소에 큰 이유가 되었던 경험을 재해석하고 기존에 지녔던 한부모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또한, 한부모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만남은 상실감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의 극복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한부모됨의 과정에서 지금-여기에서 삶의 주체가 되어 간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가정의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자부심과 유능감을 갖게 되는 경험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부모됨의 긍정성 발견과도 같은 결과이다(김지혜, 2008; 송옥, 2013). 참여자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인정받는 경험으로 어머니 역할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어머니 정체성에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고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부계 혈통의 직계 가족 원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자녀양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통념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성역할 내면화 과정과 그 불편함에 대한 깨달음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을 한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경험

과도 연결된다. 더불어, 삶의 유한성을 수용하고 학업 등의 미해결과제를 실행하거나 연대의식을 가진 사회적 관계의 구성원이 되고 경제적인 자립을 꾸준히 시도하며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과정은 중년기의 자기실현인 개성화(individuation)의 경험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통합해 ‘주체 안에서 타자로 살아옴; 배움의 기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남,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함’, ‘돌봄의 버거움을 인식함’, ‘문제는 모두 내 잘못이라는 신화에서 깨어나기; 불평등을 일으키는 고정관념, 성역할 기대에 대한 불편함을 자각’, ‘관계를 방해하는 힘과 마주침; 소수자로서 사회적 배제와 맞닥뜨림, 홀로된 여성에 대한 타자들의 시선’, ‘삶에 대한 책임감; 밥벌이의 준엄함, 자녀와 함께 걷기’, ‘관계 돌봄을 재정의함; 소통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림, 사회적 성(gender)에 대해 새롭게 봄’, ‘내가 있는 내 삶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재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참여자들 경험의 공통된 의미는 돌봄의 의미, 관계의 의미, 자기(self)의 의미에 대한 변화로 해석되었다. 이들 돌봄, 관계, 자기의 의미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맥락에서 순환관계를 이루며, 의미에 대한 변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의 의미에 대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들이 기존에 보살핌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자신의 삶을 우선 돌봄으로써 자기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가족부양의 책임자로 역할이 변화된 것에서도 확인되는데, 성역할 내면화 과정에서 여성의 발달로 여겨지지 않았던 독립심과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갖게 되고(김지혜, 2008), 중년기에 자기의 심리적 욕구를 존중해주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Rogers, 1979)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의 한부모됨은 결혼관계 안에서 남성 중심으로 맺어진 기존의 역할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험인데(Castlado, 2004), 남편과 시가와 관련된 돌봄이 줄어준 반면에 자녀와는 상호의존적인 협력 관계가 되었으며, 친정부모의 돌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져서 돌봄의 방식과 내용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계의 의미에 대한 변화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돌봄 역할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지고 한부모 자조모임 등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지지 자원이 된 점과 자기 성찰적인 반추가 깊어지는 중년기의 특성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노후를 함께 할 동반자에 대한 욕구와 성 욕구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생각했는데, 대체로 정서적인 지지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재혼 의사와 관련해 친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지만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고려하는 등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특성을 보였고, 오히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중년기 이후의 부부관계는 노후와 관련해 도구적 성격이 더 강하고(김명자·송말희, 1998),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성 한부모는 다양한 지지 자원을 구축하는 데 반해 여성 한부모는 친족관계는 확대되나 한 부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이중구속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은 축소되거나 철회하기도 한다(김지혜, 2008)는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한부모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 평가 간의 괴리로 보여 지는데, 이 연구 결과는 목적표집에 따른 참여자들의 독립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참여자들은 자기개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선택적으로 한부모임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호하는 대인관계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자조모임에서 형성된 이타적 관계는 성역할 내면화에 따른 관계지향적인 돌봄과는 다른 차원으로, 참여자들의 자기 욕구 충족과 자기 성장이라는 특성이 관계의 의미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self)의 의미에 대한 변화이다. 이것은 외상을 경험한 이후 오히려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보다 확장된 자기개방, 대인관계와 친밀감의 증진, 자기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외상 후 성장의 내용과 관련된다. 참여자들의 한부모됨은 돌봄과 관계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경험이었고,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는 성장의 과정이었다. 이런 결과는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조모임 같은 지지 집단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경우 자기 성장과 정체성 재확립의 기회가 되고(송옥, 2013),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도 지지된다(박금자, 2002). 실제로 참여자들 중 일부가 한부모가 된 이후 공부를 시작하여 성장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좌절되었던 욕구를 배움으로 자기실현하는 것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성역할 내면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순환적인 삶의 지혜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연구는 여성의 성장 경험의 이야기로 한부모가 된 이후에 겪는 아버지의 부재와 같은 부족함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내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의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색의 특징은 이야기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의미들을 실행해나가면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대안적인 이야기를 창조해간다는 점이다(고미영, 2008).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도 기억은 과거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의 재현으로 감각과 감정에 통합되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해 가는 성장의 이야기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중년여성 한부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외상에서 성장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러티브 탐색을 통한 상담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상담 실재에 다음의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중년여성 한부모를 상담할 때 내면화된 성역할 특성을 탐색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전 생애에 걸친 성역할 내면화는 상당히 견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여성 한부모가 역할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내면화된 성역할과 관련해 돌봄, 관계, 자기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은 성역할 기대와 관련된 초점을 바꾸고 평등한 관계성을 확장하도록 돕는 상담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년여성 한부모의 경험에서 이야기된 것은 고통은 개별적이지만 외상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에서 드러나는 성장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한부모가 된 사유와 적응 시기에 따라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러티브의 순환관계에서 경험을 재구성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성(gender)을 새롭게 보고 삶의 긍정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때 Frankl(1963)의 의미치료(logotherapy)는 상담적 의미를 찾는 상담자에게나 내담자의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Yalom, 1991).

셋째, 중년여성 한부모를 상담할 때 자기실현 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중년기는 삶의 경험이 의미 있게 통합되는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의식의 중심인 자아는 비로소 내면세계로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남성은 아니마로, 여성은 아니무스의 도움으로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에게로 다가간다(이부영, 2002). 그러므로 중년여성 한부모가 성인기를 지나 중년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대상들과의 관계 경험에서 사회적 자아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내담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일은 하나의 상담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상담 실제에서 한부모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내면세계와 자기실현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년기임을 깨닫게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self)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여 통합된 경험을 하도록 촉진하여, 개인이 어떠한 자기실현 과제를 갖고 있는지 살피고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 것 또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한부모됨의 경험에 극복해야 할 외상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이 연구는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부모 자조모임이 있는 단체나 비교적 개방적인 모임을 소개 받아 심층면담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의미단위는 인용하여 제시하였지만 경계가 모호한 의미단위들은 한부모가 된 사유에 따라 구분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한부모가 되기 이전의 결혼관계의 질이나 다양한 조건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내러티브 재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사유와 연령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것이다. 심층면담에서 자녀의 이야기가

언급되었으나 참여자 자녀들의 발달 시기가 다양하고 참여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되는 자녀들의 경험이었으므로, 한부모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제안한다.

셋째, 이 연구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이었기 때문에 중년여성 한부모에 대한 종단 연구로 외상 후 성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년여성 한부모의 긍정성 발견과 관련해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시야의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측면을 모두 수용해 연구결과에 담기가 쉽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장 경험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범주분류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중년남성 한부모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제안한다. 중년여성 한부모와 중년남성 한부모의 경험의 공통성 또는 차별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내면화 과정과 고유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공선영(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변화 정도, 대처 전략, 적응 및 복지요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곽배희(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순(2010).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서울: 문음사.
- 김영천·허창수(2004).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제22권 제4호. 49-81.
- 김지현(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4호. 1-22.
- 김지혜(2008). 중년기 이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연구-중년기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선·김은하(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1호. 219-242.
- 노영주(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제6권 제2호. 43-63.
- 송옥(2013). “4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목회와 상담. 제20권. 30-60.
- 이경희(2006). 이혼 후 한부모의 적응관련 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양자·정남운(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3권 제1호. 1-23.
- 주혜주(2005). 이혼 여성의 이혼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은화·이윤희(2010). “이혼 후 여성의 자기인식 변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제28권. 119-149.

- 하정혜 · 김지현(2012). “한국 중년여성 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2987-3007.
- Clandinin, D. J., Connelly, M.(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illespie, B. L., & Eisler, R. M.(1992). Development of the feminine gender role stress scale A cognitive-behavioral measure of stress, appraisal, and coping for women. *Behavior Modification*, 16(3), 426-438.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lgeson, V. S.(2002). *The psychology of gender*. NJ: Prentice Hall.
- Linely, P. A., & Joseph, S.(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cAdams, D. P.(1995). What do we know when we know a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63(3), 365-396.
- O'Neil, J. M.(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Pleck, J. H.(1981). *The myth of masculinity*. MA: MIT Press.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Tedeschi, R. G., & Calhoun, L. G.(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Yalom, I D., & Lieberman, M. A.(1991).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 334-345.
- Zoellner, T., & Maercker, A.(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 Abstract

## A Qualitative Research on Gender Role Conflict of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and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

Jung-Hye, Ha · Ji-Hye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ulti-dimensionally find the positive and potential of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with regard to their adap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e internalization of gender roles and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 through the narratives of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based on the theory of gender role conflict, which discusses a psychological conditions where the internalized gender role negatively affects themselves or other people around them. For the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data from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in 40s-50s were used, who have lived with one or more children and were divorced or bereaved more than 2 years ago, when they were over 4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narratives of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on the internalization of gender roles and post-traumatic growth consisted of ‘withstanding-standing behind the barrier-being the subject of life’ processes. This was the experience of ‘visiting the meaning of life beyond the time of alienation’, and turned out to be a process to become a true self here and now beyond the time of gradually realizing the inconvenience of the expectation of gender role, regardless of the passive endurance along with the internal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other family members as a female gender roles in the system of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addition, by integrating the commonalities of finding the meanings appeared in the internalization of gender roles and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the following subjects were derived such as ‘living like other person in the subject’, ‘recognizing the burden of care’, ‘waking up from the myth of it

is all my fault', 'facing the force that is disturbing relationships', 'responsibility for life', 'redefining what is a caring relationship', and 'meeting my life where I exist'. Give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eaning of caring, relationship, and self was discussed in terms of counselling, and a follow-up study was presented.

**Key Words :** gender role conflict,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post-traumatic growth, narrative inquiry

